

“성원에 힘입어 노력할 것”

부산불교신도회 신인회장 공병수씨 연인



부산불교신도회는 2월 28일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공병수 현 회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공병수 회장은 “이번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새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함께 운동하며 ‘한미음’ 가꾸었어요”

(사)한미음장애이후원회 20주년 기념 및 회장 취임식



“한미음장애이후원회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활동을 위해 장애인 축구팀 아니라 탁구 등산 등으로 심신을 단련하도록 돕겠습니다. 취업 알선, 결혼식 후원 등 사회적 지원사업과 시설 장애인 위문 공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한미음장애이후원회 황국근 신임회장은 20주년 기념식 및 회장 취임식이 열린 2월 23일 부산 연신동 코리아나 뷔페에서 장애인 축구단 선수와 후원자 총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전진호 부회장의 보살핌에 감동을 받아 함께 동참한 인연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1987년 장애인 축구단이 창단되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힘을 모아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황국근 회장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나탈레콤’ 대표를 맡고 있는 불자 실업인이다.

(사)한미음장애이후원회는 1987년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장애인 축구단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하는 단체이다. 장애인축구단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변신 중”

새로운 숲 가꾸기 사업 등 진행



숙이 텅빈 벌목된 도토리나무(왼쪽). 통도사 경내는 숲 가꾸기가 한창 진행중이다.

숙이 썩어 텅 빈 도토리 나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많은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었다. 일년에 20여 차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던 도토리나무는 통도사 경내 정류고 앞 도로 한 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다. 대형 관광버스 전용 솔밭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문제의 나무는 차가 달리는 도로 위에 있어 대형 버스 운전자들의 고충거리였다. 이런 고민거리가 최근 해결됐다.

통도사 측에서 벌목한 것이다. 양산사에서 택시 운송업을 하는 김병갑(35)씨는 “통도사를 찾는 손님을 모시고 올 때마다 그 나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밤에는 어두운 경내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컸었다”고 나무를 벌목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 거듭 강조했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지난달부터 숲 가꾸기를 진행 중이다. 썩은 도토리나무 벌목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다 썩어 더 이상 쓸 수 없는 나무였기에 벌목했다. 통도사는 밝힌다. 통도사의 숲 가꾸기는 오래된 논송의 정취도 살리고 생장도 돕고자 진행되는 식목사업이다.

통도사 사회국장 정웅 스님은 “현재 통도사에 있는 논송들은 단순한 소나무가 아니라 민족의 상흔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 일제의 소나무 수탈이 극심한 1920년대 후반 통도사에서 소나무 수탈이 시작됐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 당시 구하

스님은 친일파라는 오명을 감내하면서 통도사 주변의 나무를 지켜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킨 나무들은 훗날 동국대 전신 해화전문학교 설립 기금으로 사용됐으며 마산, 양산, 울산, 창원 등 각 지역의 포교당과 보광중학교를 위해 기부됐다. 구하 스님은 전쟁을 위한 재원을 포교와 교육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통도사 숲 가꾸기는 큰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논송들의 성장을 돕고 왜곡이 짙은 나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목목을 심는 청정사업입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험한 노끈이 많고 눈에 익숙했던 나무들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지요. 현재 숲 가꾸기 행사

는 3개월 동안 진행 중입니다. 왜색이 짙던 나무 50그루 정도를 베어냈고 약 150그루를 심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 순수종으로 참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소나무, 단풍나무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나무들이지요.”

정웅 스님은 숲 가꾸기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보아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도사 불교도서관 앞에는 조경사들의 나무심기가 한창이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방문객들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올봄 왕벚나무의 흐드러진 하얀 빛깔과 함께 잔디 아래에서 봄을 즐기고 있을 불자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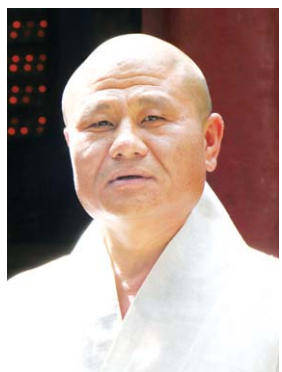


부산의료원 선우도량

환자들의 꺼지지 않는 등불

불행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 같다. 건강하게 생활하다가도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생각한다. “하필이면 왜 나일까?” 하고.

부산 사직동에 위치한 부산의료원에는 20년 전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호스피스 활동 및 간병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봉사 주지 효종 스님(사진)이 계신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처음 자원봉사 시작 투병생활 도움되도록 부처님말씀 들려줘

스님께서 어떻게 병원방문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우도량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다.

선우도량에는 매일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병실방문과 투병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부처님 말씀을 들려준다.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환자는 스님과 면담해 하고, 죽음을 앞둔 이에게는 편안하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임종기도를 해주는 등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 15년째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천복순(72세) 보살은 “그 동안 각처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보호자가 없거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힘들어 하는 환자들의 열린 공간이자 자원봉사자들의 상담소로 자리 잡고 있다.

스님께서 어떻게 병원방문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스님께서 어떻게 병원방문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스님께서 어떻게 병원방문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스님께서 어떻게 병원방문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스님께서 어떻게 병원방문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스님께서 어떻게 병원방문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스님께서 어떻게 병원방문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스님께서 어떻게 병원방문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대한독립만세’ 89년을 돌아본다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는 3·1절 제89주년 기념 평화기도회를 2월 27일 부산 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개최했다. 회장 정여 스님은 “산업시대의 함께 점점 애국애족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며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애국선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여 스님을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정여 스님은 “부산의 종교인 상호간 친목과 화합하여 민족혼을 되살리며 따뜻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08년 반여성당에서 발족한 이 모임은 애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3·1절 및 8·15 기념행사를 주최하고 생명사랑,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배움의 서러움, 경전 읽고자 극복’

삼광사 한글학교 제16회 졸업식 봉행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조차 어려워 감추고만 싶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은행도 갈 수 있고 일기도 씩니다. 나 자신이 대견해서 웃을 수 있는 오늘은 바로 주지 교장 선생님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삼광 한글학교 졸업자 대표 김철자씨의 답사이다. 67년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송사이며 답사이다.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졸업식을 거행하고 있는 가운데 2월 22일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에

서 특별한 졸업식이 봉행됐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 한글을 깨지지 못한 어르신들이 삼광사 한글학교에서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했기 때문이다.

주지 영제 스님은 “지금 사자모를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여러분들은 글을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용기 있게 극복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고 축하했다.

졸업자 김두미(67) 할머니는 “이젠 경전도 읽고 부처님 말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감사의 말을 반복했다.



2월 22일 부산 삼광사 한글학교 제16회 졸업식에서는 41명의 어르신들이 졸업했다.

삼광사 한글학교는 1992년 한글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고 올해 제16회 졸업자 41명을 포함해 1319명이 졸업했다.

하성미 기자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무자녀 소원 성취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녀는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달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며 영험을 받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 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보면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흥이 쉽게 풀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 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장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후실부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묶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협하지 말고 일을벌리려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닦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물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닦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립니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닦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묶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협하지 말고 일을벌리려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닦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물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닦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립니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松廣寺 講院 總同門會 定期總會**

송광사 강원 총동문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스님들께서는 수행정진에 바쁘시더라도 수회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탁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2월 29일(금) 낮 12시  
◇ 장소 : 서울 길상사

■ 안건 : (1) 동문회 수첩 제작 (2) 성지순례건

**松廣寺 講院 總同門會 會長**